

거룩한 재헌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뉴스레터 News Letter 259호 주후 2022년 4월 23일(토)

Holy Rededication, Moving beyond Restoration into Revival



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며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하는 훈련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설교자, 훈련자이기 이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양한 면면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나는 언제나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나의 존재를 전적위탁하며 주님만을 확신있게 찬양할 때

나의 생애와 앞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Great) 하나님으로 역사하길 원합니다.

보고 듣는 것(written word)을 넘어, 전하고 찬양하는(saying word) 예배자가 되어

누구도 줄 수 없는 능력있는(Great) 응답을 경험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십시오.

누구도 풀 수 없는 평화통일의 새 날을 활짝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Jubilee!

**반포대로 121번지에서
새롭게 집필될 시편151편으로
다가올 희년을 노래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 주빌리 900차를 앞둔 20차 특새 다섯째 날, 담임목사님의 후집회 인도 중에서

TODAY'S PRAYER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새 장을 열어 주옵소서

- 1 글로벌 특새를 통해 온 세대가 사명대로 121번지에서 재헌신 할 때, 모든 사역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 2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담임목사님 위에 강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라, 온 성도에게 소망과 축복을 몰아주시며, 기적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 3 특새에서 피흘림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평양을 비롯한 북녘 땅에도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7년 이내에 평양에서 특새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우라
(시 27)
마이클리브스 목사(유니온 신학교 총장)

“참된 담대함”은 평범하고 천부적으로 불안해 하며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통해 주어진 선물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며, 성도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표지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양 같으면서 동시에 사자 같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
(엡 4:17-24)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원로)



“용기는 난관과 싸우는 것이요, 억울함과 싸우는 것이요, 자폭과 싸우는 것이며, 이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자존심을 부르짚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여정의 도전
(로 12:2)
조쉬맥도웰 목사(조쉬 맥도웰 미니스트리 대표)

“외로움, 불안, 정신건강, 우울증, 음란물. 여러분은 이런 도전들에 관해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과 인격적 교제 관계를 맺기 전에는 교회와 주의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음란물, 우울증, 외로움 등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라
(막 14:3-9)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우리는 다 이해하지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5가지 특징
(눅 11:2-4)
칩 잉그램 목사(리빙온디엣지 대표)

“위대한 기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있을 수 없는 일’을 구하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인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 인생
(눅 15:32)

장경동 목사(중문교회)



“예수님은 ‘사실로, 사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목자의 심정으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양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루마니아 호프교회 (BBSO)
특새의 은혜 Re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 (Rev. Cristian Sonea)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루마니아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20년 전 시작된 특별새벽기도회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호프교회 전경

에스터 (Esther)

특새에 참여하게 되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광경이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게 될 그 날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단 (Dan)

비록 zoom을 통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교회에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나 (Dana)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행하신 일과 사랑의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 놀라웠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에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은 감동입니다. 여러분은 열방에 참으로 축복입니다.



본당 예배현장



中文海外放送

중국어 해외 실시간
방송 섬김

_zhangshengyu



因着爱的教会，中国的弟兄姊妹
得着恩典。感谢主！

사랑의교회 특새를 통해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같이 섬기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넷째 날

기도의 용사들
(시108)



필립 라이켄 목사(휘튼칼리지 총장)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처한 사정과 형편에 솔직해질 수 있고, 이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출 17:8-16)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평지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과 산꼭대기에서 하는 기도의 간절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서의 기도는 벼랑 끝의 기도와 같습니다. 내 간절함을 남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라
(마 14:27-32)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루마니아 호프교회)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작은 믿음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창1:3)



박신일 목사(그레이스한인교회)

“우리의 믿음은 작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점점 더 온전해 집니다.”
“주님을 붙드는 날 그 믿음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여섯째 날

인생을 결정짓는 신앙
(막 9:24)



슬라빅 페이즈 목사(우크라이나 침례신학교 총장)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믿음으로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내일이 되면 내일 필요한 믿음으로 또 하루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적에게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모두 악을 향하여 ‘노’라고 말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려움 대면하기
(수1:6-9)



이용규 선교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있었습니다. ‘주 품에 안으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저도 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반복되는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로 인해 만족할 수 있겠니?’ 그 때 대답했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900차

SAIGV 복음통일아카데미가 함께 합니다.

600차	2016년	8월	4일
700차	2018년	7월	5일
800차	2020년	6월	6일
900차	2022년	5월	5일
1000차	2024년	4월	4일

사랑의교회 대학부와 부흥한국이 2004년에 시작한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의 기도유산을 이어받아, 2011년 3월 3일에 31개 통일선교단체의 연합기도로 재출범하였습니다. 국경일과 설날, 어린이날, 추석 등 어떤 휴일에도,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향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72개 참여단체, 국내 19개**(서울, 고양파주, 춘천, 통영, 부산, 경인, 대구, 대전, 제주, 전주, 광주, 서울강서, 수원, 목포, 서귀포, 거창, 세종, 안양, 강릉) **해외 18개**(바르사바, 알래스카, 남가주, 시드니, 오클랜드, 미야자키, 시카고, 파리, 시애틀, 토론토, 애너하임, 가오슝, 방콕, 러시아A, 상하이, 베를린, 뉴저지, 워싱턴DC) 네트워크 되어, 매월 모임에 **연인원 2천명이 넘는 인원**이 총 2500차 이상의 기도의 제단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하고 있는 지역모임과 참여단체 그리고 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번 900차를 기념해서 사랑의교회 특새와 연계하여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의 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20분 은혜채플**에서 드러지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 민족의 생명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첫 모임(317차 2011. 3. 3)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새 장을 열어 주옵소서'입니다.

2. 강단초대

*오늘: 대학, 청년부, 기도온 리더

3. 감사 소개

*오늘: 데이비드 로스 목사 (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

'부활의 날에' (히 10:19~25, 행 10:38)

오정현 담임목사 (사랑의교회)

'다시 세우는 다윗의 장막' (행 15:16~18)

4. 제 900차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기념예배

오늘은 봄 글로벌 특새 마지막날로 제 900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5. '특새감사헌금' 안내

거룩한 재현신의 은혜와 맞춤형 응답을 풍성히 내려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배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일 특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기쁨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은 내일(4/24) 주일 후보 삼지된 '특새감사헌금' 봉투에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6. 제 20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예고

제20차 가을 글로벌 특새를 통해 전적 위락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고 부흥의 새날을 맞이하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2년 10월 30일(주일 전야제)~ 11월 5일 (토)

*주제(가안): "전적 위락,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7. <기쁨의 잔치> 안내

예배 후 글로벌 광장에서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님들께서 귀한 사랑의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1)무지개떡 (2)포도주스 (3)파배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욱 빛나기를 소망함으로 (4)마스크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모든 영가족들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재현신 합니다."



8. 주차안내

*교회주차장,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토요일 오전 2시 30분~ 10시까지 (입차 시 주차권 배부).

*GS파크 24: 토요일 오전 2시 30분~ 9시 30분까지.

성숙한 주차문화는 교회의 자랑입니다.

9. 은혜 게시판 안내

값비싼 보화보다 귀한 은혜를 <은혜 게시판>에 보관함으로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게시판 1000~1200> 작성하신 성도님께서는 '식탁매트와 마스크 정화 파우치' 중 하나를 드립니다. 남측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보화같은 주의은혜, 쓰지말고 담아두자!



내 하나님!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짹짹!

10년 안에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글로벌 메라-특새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특새 참여하는
글로벌 성도

은혜게사판

있으라 하신 그자리 - 장명숙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명예 부귀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이자리가 주님 주시는 만남을 누리는 곳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찬양 - 배영숙

담임목사님께서 오늘따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을 간증으로 해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뛰며 춤추는 목사님들과 '능력의 주'를 힘껏 외치니 나의 지난 밤의 피곤한 육체의 한계는 사라지고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듯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5년 내로 평양에서의 특새'를 바라보며, 그 곳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힘차게 부를 때 민족의 한을 은혜로 뛰어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

강하고 담대하라 - 김남희

슬라빅 페이스 목사님의 우크라이나 소식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우크라이나가 되길.

엄마의 기도 - 박현진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특새기념 식탁매트를 받고 싶어서 너 자는 사진을 올렸어. 괜찮지?" 20년후 특새에는 엄마와 둘이서 깜깜한 새벽에 집을 나와 특새 차량을 타기 위해 걸어가던 순간을 기억하길 바라며, 아내와 자녀의 손을 잡고 특새를 향하는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안 믿는 남편과 기쁘게 새벽기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강은경

어떤 일인지 아들과 새벽기도 나온 날 자기도 한번 가겠다며 선뜻 말했을 때 믿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부활절에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며 큰소리로 안 가겠다던 남편이라 더 신기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세세한 주님 만남 이선교사님의 간증들이 마음 밭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영혼구원의 열매로 이어지는 기적같은 기쁨의 시간 되길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37년전 우리자매_ 최혜연

37년전 사랑의교회, 우리 자매가 본당에서 찬양을 하는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포에버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렇게 마당에서 사진 찍고 잔치를 즐길 것입니다.

제 20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예고

날짜(예정): 2022년 10월 30일(주일 전야제)~ 11월 5일(토)

주제(가안): "전적 위락,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